

극장과 테러 - 테러와의 전쟁 중인 공연 산업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Photo: Brian Minkoff / Shutterstock

모든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테러 중 맨체스터 아레나에서의 테러 사고(22명 사망)는 더욱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진 속 인물들은 그저 저녁 시간을 즐기기 위해 난생처음 라이브 공연을 경험하러 극장으로 모여든 어린 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페라의 유령>이나 <위키드>를 보고 등장했던 배우들의 사인을 받으러 공연장 밖에서 기다리는 순수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창조산업의 일환인 공연계의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 몇 달은 아주 중요한 나날들의 연속이 될 것이다. 여러 물음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이 “이제 과연 관객들이 예전처럼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공연을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을까?”였다.

영국의 국가 안전 등급이 “위기 단계(Critical)”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런던 극장가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실제로 22일 테러이후 영국 정부는 23일 영국의 국가 안전 등급을 “심각(Severe)에서 위기(Critical)” 단계로 격상하였으나 맨체스터의 주요 공연장 중 하나인 ‘로얄 익스체인지(Royal Exchange)’ 그리고 ‘홈(Home)’은 바로 다음날 있었던 공연을 놀랄게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맨체스터와는 별개로, 테러 소식을 접한 런던 극장 협회는 런던 경찰청(Met Police)과 대테러보안팀(NaCTSO)과 연합하여 런던의 모든 극장에 향후 20일 동안 벌어지는 공연에 유명인사의 스케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극장엔 응급처치를 위한 필수 약품을 모두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최

근 이용되는 차량, 칼, 자살 폭탄 테러 등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인 지교육을 요청했다. 극장 측은 보안 검색 직원의 추가 배치를 권고 받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검색에 사용할 것을, 그리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불필요하게 큰 짐을 극장에 반입하지 않기를 권고했다. 직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구역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관찰할 것과 공연을 보기 위해 도착하는 관객과 공연을 보고 난 후 떠나는 관객들이 극장 입구에 모여 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청했다.

뭔가 부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 맨체스터 사람들이 처음 보여준 것은 어느 영국인들이 가진 자긍심과 강인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였다. 하지만 그들조차 피할 수 없는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을 것이다. 이제 영국 테러 수사팀에서 배후를 조사하는 동시에 극장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객들이 어떻게 무서움을 극복하고 예전처럼 극장으로 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극장과 관객을 테러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관객들을 극장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로 남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런던에 소개되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작품 <아메리칸 인 파리(American in Paris)>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브로드웨이 ‘팰리스 극장(Palace Theatre)’에서 처음 소개되었을 때, 방탄조끼를 입고 전쟁에 나서는 병사처럼 완전무장을 한 군인경찰관들이 극장 앞에 배치되었다.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그 무장 경찰관조차 함께 나란히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어주는 관광명인(?) 정도로 취급이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촬영된 극장 앞 사진의 경험 또한 흔하지 않은 (하지만 관광객들은 기념으로 찾는) 일탈이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엔 극장 가는 길에 이들이 늘 배치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뉴욕 브로드웨이엔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제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도 같은 장치가 필요할까?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된 극장들이 아니라 독립된 상업 극장주들이 서로 다른 눈높이와 보안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극장이 무장 경찰을 배치할 경우, 그렇지 않은 주변 극장주들(대부분은 극장 협회에 속한 동료 입장)은



Police officers in Times Square – Richard Jordan

곤란에 빠지게 된다. 관객 입장 시 소지품을 검사하는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엄격히 비교하면 곤란해질 것이다. 실제 웨스트엔드 극장을 다녀보면 보안 검사라는 과정이 참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줄을 서서 들어가다 가방을 잠시 열어 속을 보여주고 어셔(Usher: 극장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좌석으로 안내해주는 직원)들이 가방 속에 손을 담가(?)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객들에게 공연 시작 한두 시간 전에 도착해 모두 극장 앞에서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폭발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절차가 극장에서의 테러범을 찾아내는 데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지품을 갖고 입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지역 극장뿐 아니라 상업 극장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번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처럼 아레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어떤 극장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은 모든 극장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치된 절차만이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안전 바 뒤로 길게 줄을 서서 여러 명의 무장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가방을 열어 이곳저곳 찼러보는, 극장으로 나서는 길이 곧 일이 되는 이런 모습이 결코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경험의 시작이고 싶지는 않다. 만약 이리더 가방에서 총이나, 폭발물이라도 발견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극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한때 어셔들은 녹음장치나 카메라 등을 적발해내는 업무에서 앞으로 무기나 폭발물을 체크하도록 강요받아야 할 것 같다. 이미 알고 있듯이 공연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배우 지망생들이, 저임금으로 입문해 1막이 끝난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이나 프로그램북을 팔아야 하는 이들이 과연 테러리스트를 적발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을까? 정말이지 지금의 테러 문제가 이어진다면 극장 직원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업무를 할 저임금의 극장 직원들을 찾을 수나 있을지 궁금해진다.



Photo: Brian Minkoff / Shutterstock

가끔 어느 지역에 테러가 발생하면 각 국가 안전처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 발생국가의 여행을 되도록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공지하게 되는데, 극장 측이나 관객들이 이토록 불안한 심정으로 공연장 검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굳이 공연을 즐겨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번 맨체스터 극장테러는 분명 영국의 한 도시에서 발생했지만 상업 극장의 양대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의 극장 산업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임에 틀림이 없다. 보안 검색을 통하고 무장 경찰관을 지나 우리가 앉을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극장관계자들을 떠올려보면 옷픈 느낌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이유다. 📌